

중년의 수영 영웅은 고독했다

후원 끊겨 우울증, 수면제 복용·과음

조오련 타계...전국 곳곳서 애도 물결

박태환 “한번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가 4일 고향인 해남에서 타계하면서 그의 위대한 도전도 끝을 맺었다. 조씨의 돌연한 사망에 충격을 받은 부인 이성란 씨도 음독 자살을 기도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자택 현관에 쓰러진 채 발견, 119 구조대에 의해 해남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로써 지난 1980년 8월 첫 횡단 이후 30년만인 내년 광복절에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려했던 ‘마지막 도전’은 미완으로 남게 됐다.

조씨는 마지막 도전을 위해 최근 제주도에서 캠프를 차려놓고 준비하며, 1주일 전부터 자택에 머물면서 부인과 함께 지내왔다.

횡단 도전을 앞두고 훈련비를 걱정하던 그는 후원이 몇 차례나 성사단계에서 물거품이 되자 고민에 빠져 최근 3일동안 술을 마셨고, 이날 아침에도 술을 입에 뱉었다고 주위 사람들이 전했다.

조씨는 또 지난 2001년 전 부인의 갑작스런 죽음 등으로 생긴 우울증이 최근 재발해 약을 복용해왔으며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에 다량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시신을 부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3시40분께 부인 이씨마저 음독자살을 시도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씨는 자택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뒤 오빠의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해남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조씨와 결혼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한 수영 영웅’의 타계 소식에 각계의 애도의 물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조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방문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섰으며, 빈소가 마련된 해



4일 타계한 조오련씨의 차남으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성모(26)씨가 해남읍 국제장례식장에 도착해 영정에 절을 올린 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나서고 있다.

남읍 국제장례식장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들이 줄을 이었다.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조씨의 마지막 도전이 무산됨을 안타까워했으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국민에게 희망을 북돋워줬던 그의 일생을 회고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한국 수영계도 충격에 빠졌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들은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참관하고 귀국한 이날 공항에서 비보를 접하고 조문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대표팀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 머물고 있는 박태환 선수는 비보를

전해듣고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다. 박 선수는 “이번 대회 출전한 나를 보고 한번 찾아오라며 따뜻한 말을 해주셨다고 들었다”면서 “돌아가셨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선생님의 뜻을 기려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조오련 돌연사 왜
대한해협 횡단 준비
스트레스 시달린 듯

중년의 나이에도 건강을 과시했던 조오련씨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단 조씨의 최종 사인은 심장마비에 의한 ‘심폐정지’로 알려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조씨가 평소 건강했다 내년 대한해협 횡단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기 보다는 돌연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밖에 조씨가 대한해협 횡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과음을 했다는 주변의 얘기도 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부검을 통해서 가려질 전망이다.

오봉석 전남대 의대 교수는 “마라토너나 수영선수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장이 훨씬 큰 반면 박동 수는 크게 느리기 때문에 간혹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은 운동선수의 돌연사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포츠 스타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조오련 선수의 사망 소식 이전에도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지난 1995년 겨울 슈퍼리기에 출전 중이던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센터 김병선은 숙소를 나서다가 돌연사했다. 과로하던 심장 대동맥이 파열돼 죽음을 이르는 ‘마관씨 증후군’이 사인이었다.

2002년에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참여한 송실대 김도균 선수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침 (7873) 김장두



금은방 절도 대학생 영장

광주광안경찰은 4일 금은방에서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친 대학생 안모(27)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모 금은방에서 주인 A(55)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2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진열대(가로 40cm)를 뚫개로 훔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금남로 카퍼레이드 1980년 8월 23일 불굴의 인내와 의지로 사상 처음 대한해협을 도영(渡泳)한 조오련씨가 광주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금남로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날 환영행사는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와 전일방송이 마련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해남 촌놈서 아시아 스타로... 한국 수영 큰 별

■ 조오련은 누구

고(故) 조오련 선수는 1952년 해남읍에서 5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해남 방죽에서 헤엄을 치던’ 그가 수영과 인연을 맺은 것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다. 집안 심부름으로 제주도 갔다가 우연히 하계체전 수영 예선전을 보고난 뒤, ‘1등이 나보다도 못하다’란 생각이 들면서부터다.

수영선수의 꿈을 막연히 키워오던 조씨는 해남고 1학년 때인 1968년 12월 무작정 자퇴서를 내고 서울로 상경했다. 청계천 부근 간판집과 참고지기로 일하면서 종로 2가의 YMCA

수영장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 하지만 경력도 없고 역센 전라도 사투리의 시골 소년은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1969년 6월 전국체전 서울시 예선에 수영복조차 없이 ‘사각팬티’를 입고 출전해 자유형 400m와 1,500m를 석권하며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후 개인 혼영 200m 한국신기록을 깬 것을 시작으로 한국 수영계를 평정했다.

조씨는 양정고 2학년 때인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한국스포츠 사상 첫 아시안 게임 2관왕에 오르며 ‘아시아의 물

개’란 애칭을 얻었다. 4년 뒤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같은 종목 2연패를 달성했다. 조씨는 수영 덕분에 고려대에 진학해 배움에 대한 원도 풀었다.

그리고는 수영선수로서는 환갑을 넘은 나이인 27세에 출전한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접영 200m 동메달을 따낸 뒤 선수 생활을 접었다. 그는 배영 100m와 광영 100m, 200m 등 세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무려 50차례나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현역에서 물러난 조씨는 1980년 8월11일 사상 최초로 대한해협을 13시간16분 만에 횡단했다. 5·18 광주항쟁 직후였지만 금남로에선 대대적인

시민환영대회도 열렸다. 2년 뒤엔 현지 가이드가 체재비를 몽땅 갖고 달아난 와중에서도 32km의 도버해협을 건너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자신의 수영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가 하는 봉제업을 키우려다가 가산만 축냈고, 1984년엔 해남으로 내려오던 중 교통사고로 얼굴과 오른팔이 찢어지는 중상도 당했다.

사고와 사업 실패로 낙담하던 조씨는 1989년 서울 압구정동에서 ‘조오련수영교실’을 열어 제2의 수영인생을 시작했다. 고인은 또 광복 60주년인 2005년, 두 아들 성웅·성모씨와 함께 울릉도~독도를 횡단했다. 지난해엔 독도 33바퀴 헤엄쳐 돌기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등 잠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초등생들 대학 운동장서 상습 절도

생다발

○...광주북부경찰은 4일 대학교 운동장 관중석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K(12)군 등 초등학생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 달 27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대학 운동장에서 학생 이모(24)씨가 축구를 하는 사이 관중석에 놓여있던 이씨의 옷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K군 등이 훔친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마시자! 알칼리 이온 시스템

특/기/세/일 485,000 원

2주완전 무료체험단 모집 광주지사 1544-1218

(주)동원광학 (주)이오니아

아이엘리시아

HAVER-합의 헤어디자이너

062-671-1199